

## 조선후기 고소설 속 '아동 서사'의 문학적 장면과 사회적 의미

—〈창선감의록〉과 〈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김수연\*

— <차 례> —

1. 시작하며-고소설의 사회 우의(寓意)와 '문학적 장면'
2. <창선감의록>의 '동해(童孩)'와 조선후기의 아동
3. <완월회맹연> 속 '아동 서사'의 장면들
  - 1) 납치와 유기
  - 2) 표박과 행걸
4. 유기(遺棄)와 행걸(行乞)의 문학적 전유
5. 마치며-고소설 속 사회 풍경

### <국문초록>

이 글은 소설이 '인간 삶의 특수한 상황을 문학적으로 장면화하여 제시하는 장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문학적 상상력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 집단적 표상에 대한 서사적 기억 방식으로 '문학적 장면'을 제안한다. 고소설이 이야기 형태로 기억하고 기록하는 수많은 과거의 생활상 중에서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조선조 아이들의 이야기, 즉 '아동 서사'이다. 이를 위해 먼저 <창선감의록>을 통해 고소설에서 15세까지를 동해(童孩)로 부르며 "어리고 무지한 아이"로 보는 것을 확인했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조선 사회에서 통용되던 아동의 나이와 일치함을 보았다.

다음으로 <완월회맹연>을 대상으로 본격적 아동 서사의 문학적 장면화를 살폈다. '아동 서사'의 주요 사건은 '가족과의 분리'이고, 이것은 다시 '납치와 유기', '표박과 행걸'로 나누어진다. 작품 속 '아동 서사'의 장면에는 일정 부분 당시 아이들

\*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의 삶에 대한 대중의 서사적 기억과 반응, 즉 아이들의 현실에 대한 우의가 포함되어 있다. 실제 법령과 역사 기록 등에서 조선후기의 아동 유키와 행걸의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였음을 확인했다. 소설이 그리는 아동 서사의 주요 장면들은 조선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아동의 유키와 행걸’에 대한 문학적 전유인 것이다.

□ <창선감의록>, <완월회맹연>, 문학적 장면, 아동 서사, 납치, 유키, 표박, 행걸

## 1. 시작하며-고소설의 사회 우의(寓意)와 ‘문학적 장면’

고소설은 저승이나 천상 같은 비현실 공간을 배경으로 할지라도 그것이 창작·향유된 시대상과 사회상을 우의적으로 서사한다. 중국을 배경으로 한 고소설이 ‘조선’을 우의한 것임은 더욱 말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소설은 ‘인간 삶의 특수한 상황을 문학적으로 장면화하여 제시하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판타지 소설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문학적으로 재연한 것이듯, 가허차공(架虛鑿空)의 고소설은 조선의 역사를 문학적으로 장면화한 것이다. 여기에서 ‘문학적으로 장면화’했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의 기술과 다르다. ‘문학적 장면’이란 물리적 장면(movie scene)이 아니라, ‘문학적 상상력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 집단적 표상에 대한 서사적 기억 방식(memorial scene)’으로 규정할 수 있다.<sup>1)</sup>

문학 텍스트는 많은 경우 개인이 창작한 것이지만, 그 안에 담긴 ‘장면들’은 특정 시대 상황에 대해 사람들이 공유하는 감정과 태도, 전망과 바람, 상상과 이미지를 담고 있다. 이것은 고소설이 사회 현실에 대한 ‘서사

1) 이 글에서 제안하는 ‘문학적 장면’은 융의 ‘집단 무의식과 원형’, 에밀 뒤르켐의 ‘집합적 표상’, 김홍중의 ‘마음의 레짐’ 등 정신분석학과 사회학의 개념에 ‘상상력과 이미지’라는 전통적 서사학의 개념을 결합하여 구성한 개념이다. 에밀 뒤르켐, 노치준 외, 『종교적 생활의 원초적 형태』, 민영사, 1992;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15.

적 반응'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작품의 '서사적 반응'은 작품 안에서 시대에 대한 은유와 우의를 발견하는 텍스트 내재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외재적 접근 방식으로 다루어지는 문학의 '사회 반영'과 다르다. 소설은 '사회에 대한 서사적 반응을 문학적 장면화로 구현하는 장르'라는 입장에 선 이 글은 고소설의 사회사적 비평의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다.

고소설 작품마다 시대상을 우의하는 문학적 장면들이 존재한다. <남염부주지>의 '박생과 용왕이 만나 문답하는 장면', <구운몽>의 '부귀영화를 이룬 양소유가 8선녀와 등고하여 인생무상을 깨닫는 장면', <소대성전>의 '소대성이 처가에서 구박받는 장면', <심청전>의 '심청이 연꽃 속에서 재생하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고려, 용궁, 중국 등 다양한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조선의 지식인이 지녔을 사상적 고뇌와 갈등을 드러내고, 조선의 사족들이 경계했던 세속적 욕망의 한계를 보여주며, 가족 간에 존재했던 대립과 각박함을 들려주고, 가부장제에 희생된 자녀에 대한 사람들의 연민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조선조 남원을 배경으로 한 <춘향전>의 '춘향이 항거하는 장면'과 '암행어사 출두 장면'이 지배층의 불의에 저항하고 부패를 징치하려는 소망을 표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홍길동전>이 '세종조'를 배경으로 삼은 것은 <구운몽>이 중국의 당나라를 배경으로 삼은 것과 같은 맥락의 우의이다. '세종조'는 실재했던 역사적 인물 홍길동의 시대도 아니고 작가로 추정되는 허균의 시대도 아니며, 방각본 <홍길동전>이 유행하던 시대도 아니다.<sup>2)</sup> 배경이 조선이라는 이유만으로, <홍길동전>이 중국 당나라를 배경으로 한 <구운몽>보다 더 조선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작품들이 조선에서 창작되고 향유되었다는 사실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구운몽>의 문학적 장면

2) 김성우, 『홍길동전 다시 읽기-조선사회의 경직화와 마이너리티의 저항』, 『역사비평』, 2002.12., 414~419쪽.

에서 작품이 우의하는 조선의 특수한 시대적 현상과 그것에 대한 서사적 기억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고소설은 수많은 과거의 생활상을 이야기 형태로 기억하고 기록한다. 그중에서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조선조 아이들의 이야기, 즉 ‘아동 서사’이다. 아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고소설의 핵심 인물 중 다수가 아동임에도 정작 고소설의 인물을 논할 때 ‘아동’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에도 분명 수많은 ‘아동’이 실재했었기에 고소설도 그들의 삶을 적지 않게 문학적으로 서사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설 속 이동을 ‘아동’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것은 아마 고소설이라는 장르가 지닌 ‘시대적’ 거리 때문일 터이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작품이 인물을 소개할 때 그 나이에서 쉽게 보지 못하는 용모와 재주, 학문과 덕성을 강조하여서이다. 아동이 주요 인물일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어린 주인공은 대개가 신인(神人)과 같은 용모와 재주를 지니고, 성인(聖人)에 가까운 덕성과 학문을 겸비한 것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묘사 덕분에 독자는 그들을 어른보다 더 성숙한 존재로 인지한다. 이것은 자칫 그들을 사회 현실과 무관한 추상적·관념적 대상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고소설 연구사에서 고소설의 ‘아동’을 사회적·역사적 상황과 연결시키려는 문제의식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은 그 때문이다.

고소설 속 ‘아동’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최근에야 이루어졌다. 한길연은 국문장편소설 속 아동 인물의 서사적 기능을 ①사건의 폭로와 매개 ②갈등의 바로미터 ③분위기 진작 및 갈등 해소의 유희유 ④사건의 본질 포착 및 해결로 구분하고<sup>3)</sup> 그 의미를 “계층상의 다층적 구도와 더불어 대하소설의 총체성을 구현하는 데 일조”하고 “한 개인의 총체적인 삶의 구현에

3) 한길연, 『대하소설 속 ‘아동’의 서사문법적 역할과 의미』, 『국문학연구』 28, 국문학회, 2013, 46쪽.

도 이바지한다”라고 정리했다.<sup>4)</sup> 이어 생활문화적 관점에서 소설 속 아동의 교육과 처벌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는데,<sup>5)</sup> 이러한 논문은 아동을 독립적 캐릭터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능적 분류는 작가가 기법 면에서 아동을 바라본 것이고, 교육 방식은 어른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아동의 모습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 글은 기존연구의 의의를 계승하면서 동시에 서사적 기능과 교육 방식이 포착하기 어려운, 작품에 우의된 역사적 아동에 대한 문학적 장면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것은 소설이 향유된 시기의 ‘아동 서사’가 지닌 사회적 의미에 접근하기 위해서이다. 구체적 논의를 위해 17세기를 대표하는 작품이자 다수의 이본과 독자를 지닌 한문장편 <창선감의록>과 거대한 편폭에 다양한 아동 서사를 포함하고 있는 18세기 국문장편 <완월회맹연>을 주자료로 삼고자 한다.<sup>6)</sup> 전자는 고소설에 아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점의 아동 개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후자는 아동 서사의 문학적 장면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

## 2. <창선감의록>의 ‘동해(童孩)’와 조선후기의 아동

주지하듯 15-16세기까지 고소설의 중심 장르였던 전기소설은 주로 10대 후반 이후를 중심 인물로 삼는다. <최치원>의 최치원은 울수현위로

4) 한길연(2013), 위의 논문, 78~79쪽.

5) 한길연, 『생활문화사적 측면에서 본 대하소설 속 “아동”의 형상화와 그 의미』, 『고소설연구』 37, 한국고소설학회, 2014, 262~313쪽.

6) 분석 텍스트는 기존연구에서 각각 선본 계열로 규정한 국립중앙도서관본 <창선감의록>과 장서각 소장 <완월회맹연>이다.

부임하여 쌍녀분의 필랑·구랑과 인연을 맺는데,<sup>7)</sup> 기록에 따르면 당시 최치원은 20세였다.<sup>8)</sup> 또한 <이생규장전>의 이생은 고려조 개성에서 국학에 다니던 18세의 유생이었다.<sup>9)</sup> 모두 성인(成人)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초반부터 직접적이고 본격적인 결연이 등장한다. 이것은 전기가 문인·지식인의 철학적·학문적·현실적 고뇌에 집중된 장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가 17세기에 본격적 장편화가 이루어지고 가문·집안의 생활을 소재로 하는 작품이 등장하면서 서사의 중심에 ‘아동’ 인물이 나타난다. 이러한 작품들을 가문소설로 명명하는 것은 가문을 구성하는 인물들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내용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가문소설은 복수 가문의 여러 세대가 등장하고 부모와 자녀, 형제와 동서, 처가와 본가, 집안과 조정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갖 관계서사를 동원한다. 이들 작품은 대체로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혹은 손자 세대까지를 아울러 구성되는데, 대개는 아들 세대가 핵심 인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년의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낳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성장과 결연이 서사의 핵심이 되고, 작품의 말미에 손자 세대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구조는 이후 국문장편소설과 영웅소설에서 적극 수용된다.

그렇다면 가문소설이 바라보는 ‘아동’은 대략 몇 살쯤일까? 17세기 후반 조성기가 창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창선감의록>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나온다. 명나라 병부상서 화옥은 첫째 부인 심씨에게 장자 화춘을 낳고, 둘째 부인 요씨에게 딸 화태강을 낳고, 셋째 부인 정씨에게서 차자 화

7) 이대형 역, 『수이전』, 소명, 2013, 37쪽.

8) 최치원, 『계원필경집』, 『계원필경집서』, 고전번역원; 곽승훈, 『고운집』, 『최치원의 저술과 고뇌, 그리고 역사탐구』, 고전번역원, 2009.

9) 김시습·구우, 김수연·탁원정·전진아, 『금오신화 전등신화』, 미다스북스, 2010, 265쪽.

진을 낳는다. 작품은 화진을 핵심 인물로 삼아, 화진과 화춘 사이의 계후 갈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서사를 펼쳐나간다. 옥기린 태몽과 함께 태어난 화진은 3-4세에 “양모가 담담하고 서각이 풍영하며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이 사람을 놀라게 했다.”<sup>10)</sup> 또 모친 정씨가 『내칙』과 『효경』을 읽고 있으면 “아이가 책상 곁에 앉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외우더니, 글의 뜻도 이해하고 아는 것이 재법 많았다.”<sup>11)</sup>

9세에는 이미 『시경』과 『서경』과 『논어』에 통달했고, 심지어 간신 엄승이 조정을 농단하는 일로 걱정하는 부친에게 “『시경』에 ‘무지개가 동쪽에 있는 것을 보고도 감히 지적하여 가리키지 못한다.’고 했으니, 남어사가 소인의 죄악을 지적하려다가 도로 역적의 죄를 뒤집어쓰게 되셨으니 이것을 보면 지금은 군자가 기미를 살피 자리를 옮겨 갈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을 한다.<sup>12)</sup> 그리고 12세에는 화옥과 윤시랑이 화진과 윤옥화·남채봉의 혼인을 정하고, 3년 뒤 15세가 되면 혼례를 치르기로 약조한다.<sup>13)</sup> 그 뒤의 일은 화옥과 정부인의 갑작스런 죽음, 심씨와 화춘의 패약, 화진과 화태강의 고난, 화진과 윤씨·남씨의 혼인, 화진 부부의 시련, 심씨와 화춘의 타락, 화진의 발신과 심씨 모자의 개과천선, 화진과 화춘의 자녀들 이야기이다.

전체 14회로 이루어진 작품의 후반인 13회에 모든 고난이 마무리되어 서야 비로소 윤씨를 찾아온 화진에게 윤시랑은 “자네 부부의 나이가 이제 갓 스물이 넘었으니, 육례를 조금 늦게 하여 이제야 서로 만났다고 해도 아직 늦은 나이가 아니라네. 지난번의 슬프고 좋았던 일은 모두 전생의

10) 『창선감의록』 국립중앙도서관본, 3쪽.

11) 위의 책, 3쪽.

12) 위의 책, 3쪽.

13) 위의 책, 7쪽.

일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일세.”<sup>14)</sup>라고 이야기한다. 이에 화진은 탄식하며 “『예기』에 30이 되거든 장가를 들라고 한 말이 우연이 아닙니다. 나라에 조혼하는 것이 풍속이 되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童孩]를 억지로 결혼시켜 음양의 관계를 본받게 하니 어찌 재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sup>15)</sup>라고 답한다. 화진과 윤옥화는 15세에 혼례를 치렀지만 2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실질적 부부가 된 것이다.

<창선감의록>은 인물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20세가 될 때까지의 서사를 생애주기에 따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3-4세에 지혜로운 말로 사람을 놀라게 하고 『효경』을 외우며, 9세에 『시경』·『서경』·『논어』에 통달하여 부친과 정사를 논하는 것이 다소 비현실적이지만, 여전히 작품은 15세에 혼례할 때까지를 동해(童孩), 즉 아동으로 보고 있다.<sup>16)</sup> 이것은 화진의 말을 통해 확인된다. 화진은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가문이 회복된 20세에, “어리고 무지한 아이들을 억지로 결혼시키는” 조혼의 풍속이 모든 불행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화진의 경우는 12세에 정혼하고 15세에 혼례를 치렀으니, 15세까지는 아직 “어리고 무지한 아이”라고 보는 것이다.

<창선감의록>에서 15세까지를 ‘동해’로 부르며 “어리고 무지한 아이”로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례의 나이, 풍속지 등에서 교육의 대상으로 삼은 아동의 나이, 그리고 국가가 복지의 차원에서 구휼하는 아동의 나이와 일치한다. 관례를 했다는 것은 성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7)</sup> 『예기』에는 20살에 관례를 행한다고 했지만<sup>18)</sup> 조선후기에는 15세

14) 위의 책, 95쪽.

15) 위의 책, 95쪽.

16) 동해(童孩)는 아동(兒童)과 해아(孩兒)의 결합어이다. 기존연구에서 아동에 대한 명칭으로 ‘童孩’를 소개한 경우를 찾을 수 없었으나 조선후기 여러 글에서는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정약용, 『다산시문집』, 「秋懷」, 고전번역원.

가 넘으면 관례를 행했던 듯하다. 정약용은 15세에 관례를 치르고 혼인을 했고,<sup>19)</sup> 김창협은 동생 김창립도 16세에 관례를 올리고 17세에 혼인을 했다.<sup>20)</sup> 관례를 통해 성년이 되었다는 것은 대체로 혼인을 하여 가장이 될 수 있는 나이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15세가 넘으면 관례를 할 수 있다는 분위기는 아동에 대한 교육과 구휼 제도 등에도 반영되었다. 『동국세시기』와 『경도잡지』 등의 풍속지에 나오는 풍속이 아동에게 교육적 의미가 있다는 보고에서 확인하듯, 당시 '아동의 놀이'라는 하는 것은 대략 10세 초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sup>21)</sup> 또한 조선후기에 여러 차례의 전쟁과 흉년 등의 이유로 보호자를 잃은 아이들의 구휼을 시행했는데, 이때도 구휼의 기간을 최대 15세로 제한하고 있다.<sup>22)</sup> 이러한 정책의 기조에는 16세가 되면 한 명의 성인으로서 자신의 생활을 꾸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전제된 것이다. 조선후기 '아동'에 대한 관념은 적어도 15세 이하를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가르치고 구휼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창선감의록>의 '동해'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동 서사'의 다양한 문학적 장면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17) 김창협, 『농암집』, 『贈李樂甫序』, 고전번역원; 송익필, 『동춘당집』, 『遺事 三十六條 宋時烈』, 고전번역원.

18) 『예기』 '곡례' 상.

19) 정약용, 『경세유표』, 『다산 정약용 연보』, 고전번역원.

20) 김창협, 『농암집』, 『六弟墓誌銘 并序』.

21) 신양재, 『조선시대 풍속지에 나타난 아동교육 고찰-『동국세시기』·『열양세시기』·『경도잡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한국가정관리학회, 1994, 225쪽.

22) 정약용, 『목민심서』, 『에민·자유(慈幼)』, 『我朝立法, 許其收養爲子爲奴, 條例詳密』, 고전번역원.

### 3. <완월회맹연> 속 ‘아동 서사’의 장면들

<완월회맹연>은 180권 분량의 대작이다. 18세기에 창작된 이 작품은 15세기 명나라 영종(英宗)부터 대종(代宗)을 거쳐 헌종(憲宗)까지를 배경으로, 북송조의 대학자 정호(程顥)의 후손인<sup>23)</sup> 태부 정한 집안의 5대에 걸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핵심 사건은 3대째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달밤의 잔치에서 약속을 정하다’라는 뜻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정한은 자신의 생일날 친우인 조겸의 제안을 따라 손자 손녀들의 혼인을 정한다. 이날 정혼하는 아이들은 정삼의 두 딸 정명염·정월염과 입후한 아들 정인성, 그리고 정삼의 자녀인 정인광과 정자염 등이다.<sup>24)</sup> 정명염을 제외한 대부분은 채 10세도 안 된 유아유녀(幼子幼女)이다.<sup>25)</sup> 12세의 정명염은 16세의 조세창과 정혼하고,<sup>26)</sup> 8세의 정월염은 동갑인 이창린과 정혼하며<sup>27)</sup> 6세의 정인성과 정인광은 각각 동갑인 이자염<sup>28)</sup> 및 장성완과 정혼하고,<sup>29)</sup> 4세인 정자염은<sup>30)</sup> 5세의 이창현과 정혼한다.<sup>31)</sup> 이들은 모두 <완월회맹연>의 서사를 이끌어 가는 중추적 인물이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3) 『완월회맹연』 권1, 장서각본, 1쪽.

24) 『완월회맹연』 권2, 11쪽.

25) 위의 책, 12~13쪽.

26) 위의 책, 29~30쪽.

27) 위의 책, 10~11쪽.

28) 위의 책, 12쪽.

29) 『완월회맹연』 권1, 28쪽; 권2, 24쪽.

30) 『완월회맹연』 권2, 21쪽.

31) 위의 책, 11쪽.

	관계	배우자
정명엽 12세	정삼의 장녀 (양부인 소생)	조세창 16세 (조겸 손자)
정월엽 8세	정삼의 차녀 (양부인 소생)	이창린 8세 (조겸 외손자, 이빈 양자)
정인성 6세	정삼의 양자 (정삼·화부인 장자)	이자염 6세 (조겸 외손녀, 이빈 장녀)
정인광 6세	정삼의 차자 (화부인 소생)	장성완 6세 (장헌 장녀)
정자염 4세	정삼의 딸 (화부인 소생)	이창현 5세 (조겸 외손자, 이빈 아들)

얼마 후 병든 정한은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아들인 정삼과 정삼 형제에게 7-8년 동안 가족이 이산하더라도 10년 이내에 모두 모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미래를 위해 유서 4장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sup>32)</sup> 바로 그 '10년 이내의 이야기'가 <완월회맹연>의 본사가 되는 것이다. 대략 권4부터 권36까지 이어지는 정한 사후 10년간의 이야기는 이제 막 정혼을 한 6세 전후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즉, 이 아이들이 15세 전후의 혼인 적령기가 되기까지의 사연이 핵심이 되는 것이다. 30여 권 분량이 '아동 서사'에 할애된다고 할 수 있다. <완월회맹연>이 그리는 '아동 서사'의 주요 사건은 '가족과의 분리'이다. 이것은 다시 '납치와 유기', '표박과 행갈'로 나누어진다. 그 구체적인 양상은 '아동 서사'가 본격화되는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 납치와 유기

### 장면1.

이때 화부인은 기운이 신령하여 귀신도 예견할 수 있었다. 객점의 상하에 불이 일어남을 보고 문득 월엽소저의 옷을 벗겨 어린 시비 섬옥에게 입히고 ... 맹추가 크게 놀라 사색이 되어 일시에 군사를 물려서 산지사방으로 급히 흩어

32) 『완월회맹연』 권3, 22~23쪽.

지자 청계공이 비로소 사람들을 불러 보았다. 사랑의 왼쪽 팔뚝이 상한 것과 도적이 월염의 가마를 납치해 갔다는 것을 듣고 매우 놀라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말을 못했다. 인성이 앞에 나와 낮은 소리로 붙들고 말했다. “누이의 가마를 비록 도적이 가져갔으나 여중 하나를 잃을 뿐이니 대인은 걱정마시고, 할머니가 산에서 기다리시니 바빠 올라가시면 숙모와 모친의 수레는 소자가 호행하겠습니다.” 상서가 급히 물었다. “그렇다면 네 누이는 어디 있느냐?” 대답하기를 “잠깐 피하였으니 춘파가 충근하니 누이를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서가 비로소 심신을 안정했다. [권4]<sup>33)</sup>

‘이동 서사’가 본격화되는 것은 아동에게 ‘사건’이 발생했을 때이다. 그 ‘사건’은 대체로 아동을 부모 및 가족과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완월회맹연>에서 아동에게 벌어지는 본격적 사건의 시작은 ‘납치’이다. 완월대에서 정혼 이후 약 2년 후에 정한은 병사하고, 그의 가족은 고향 태주로 낙향한다. 이때 정잠의 후처인 소교완이 양자 정인성 대신 자신이 낳은 정인중을 계후로 세우기 위해 아이들을 해칠 계교를 세운다. 이를 위해 시비 계월의 남편 맹추를 시켜 정잠의 차녀 정월염을 경왕에게 바치게 하고, 녹빙의 남편 왕술위에게는 정인성을 죽이도록 한다. 이에 맹추와 왕술위 등은 각각 경왕의 군사와 도적 장손술의 힘을 빌려 태주로 내려가는 아이들을 공격한다. 장면1은 맹추가 경왕의 군사를 이끌고 와 정씨 집안 사람들이 묶던 객점에 불을 지르고 정월염을 납치해가는 장면이다. 다행히 화부인의 기지로 정월염이 시비 섬옥의 옷을 입고 가마를 바꾸어서 화를 피할 수 있었다. 이때 월염의 나이는 10세이다. 월염 대신 납치된 시비 섬옥도 나이 어린 시비라 하였으니, 월염과 또래임을 알 수 있다.

33) 『완월회맹연』 권4, 29~39쪽. 인용문은 필자의 현대역으로 제시했다. 이하 동일.

## 장면2.

흉적 장손술이 신기히 여겨 생각하기를 ‘이런 비상한 아이를 일시에 죽이면 하늘의 재앙이 있을까 두려우니 인성만 물에 던져 내 위엄을 보인 후 인광을 잡아가다 숙부께 드리리라.’ 하고 … 인성이 적들의 이 같은 행동을 봄에 또한 삼갈 일이 없어 칼을 날려 적졸 4·5명을 찢러 거꾸러뜨리니 비록 죽지는 않았으나 모두 쓰러졌다. 두목 장손술이 대로하여 직접 달려들어 그 칼을 빼앗고 적들에게 호령하여 공자를 잡아 물에 던지니 아! 인성 공자의 사람됨이 비록 빼어나고 영웅다우며 진중하고 정대하여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독보적이지만 나 이로 치면 8세의 어린이라. 아직 혈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만 명의 장부도 못 당하는 장손술과 강맹한 도적들을 어찌 당해내겠는가? 홍윤이 물에 빠지고 모든 노비들이 기절한 중에 인광이 홀로 힘을 다해 충돌하여 형을 구하고자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속절없이 독수의 해를 면하지 못하여 물에 빠진 것이다. [권5]<sup>34)</sup>

장면2에서는 정인성이 도적에 의해 강물에 버려지는 상황이 그려진다. 납치한 이동을 유기하는 것이다. 이동의 유기는 살해의 의도를 포함한다. 이동은 버려지는 순간 죽음과 직면하기 때문이다. 도적 장손술은 정인성·정인광 형제의 빼어난 자질을 확인하고 이어 이들을 돕는 신이한 기운이 있음을 감지한다. 이에 함부로 이 둘을 모두 죽이면 하늘로부터 큰 재앙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정인성만 물에 빠뜨려 버리고 정인광은 납치해 가고자 한다. 그렇게 하여 정인성은 물에 던져지는데, 이때 서술자는 정인성이 역사 이래로 독보적인 자질과 영웅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8세의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장손술과 도적들의 용력을 당해내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무리 뛰어나도 ‘아이는 아이’라는 인식과 그런 아이가 어른들에게 납치되고 버려지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설 속

34) 『완월회맹연』 권5, 10~11쪽.

영웅적 인물 묘사의 틈새에 남아 있는 현실의 ‘아동’에 대한 시선이라 할 수 있다.

### 장면3.

공자가 비록 숙성했으나 나이 어린 동몽이기 때문에 첩첩이 둘러싼 요인의 무리를 물리칠 계교가 없어 정히 속수무책으로 있는데, 문득 남자 10여 명이 각각 창검을 차고 내려와 태허자의 말을 전했다. “만일 도관으로 안 온다면 그 자리에서 죽여 백골도 남기지 않고 소저를 데려다가 유구국과 몽골에 천금을 받고 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가마를 빼앗으러 달려드는 거동과 언사가 참혹하여 차마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었다. [권5]<sup>35)</sup>

아동의 납치와 유기는 종종 인신매매로 연결된다. 정인광과 정월염에게 닥친 첫 번째 위험도 그러한 성격의 것이었다. 도적 장손술의 무리에게 형 정인성을 잃고 슬픈 마음으로 망망한 강을 배타고 떠돌던 정인광과 정월염은 계행산에 도착한다. 이곳에는 청선관과 태청관이라는 도관이 있는데, 태청관에서 도를 닦는 이는 태허자 장손활이고 청선관에서 도를 닦는 이는 운화선 진소애이다. 이들은 사람들을 데려다 제자로 삼는데, 만약 제자 되는 것을 거부하면 참혹하게 죽이거나 동굴에 가둔다. 위에서 보듯 태허자의 무리는 정월염과 정인성도 데려다 도당으로 삼으려 했다. 그러면서 만약 저항한다면 그 자리에서 죽이거나 먼 나라 유구와 몽골에 팔아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정인성의 형제들뿐 아니라 <완월회맹연>의 비중 있는 아동 인물은 대부분 유사한 경험을 한다. 정월염과 정혼한 이창린은 원래 장창린으로, 친부 장현이 소주자사로 부임하는 길에 도적에게 납치당했던 인물이다. 당

35) 위의 책, 27쪽.

시 나이가 5-6개월이었다. 젓먹이 때부터 떠돌며 우여곡절을 겪은 장창린을 이빈이 거두어 양자로 삼은 것이다. 정삼의 차자 정인경과 혼인하게 되는 교숙란도 원래는 주양의 딸 주성염으로, 이창린과 마찬가지로 5-6개월 되었을 때 도적 장손탈에게 납치를 당한다. 그 뒤 여러 가지 일이 얽혀 14년간을 교한필의 딸로 살게 된다. 정인경과 만나기 전까지 교숙란은 양모 여씨의 흥계로 여러 곤경을 겪고, 마침내는 여씨와 싸고 자신을 취하려고 하는 외종질을 피해 강물에 투신하기도 한다.

또 한 명 주목할 인물은 상연교이다. 상연교는 정한의 딸 정태요의 막내딸로, 부모의 끔찍한 사랑을 받았던 아이이다. 그 역시 완월대의 모임에서부터 특별한 자질이 언급되었던 인물이다. 상연교는 정씨 집안 사람들이 태주로 내려갈 때 모친 정태요와 함께 따라가는데, 가는 도중 장손술과 왕술위 일당에게 납치당한다.<sup>36)</sup> 이때 상연교의 나이는 7세이다.<sup>37)</sup>

#### 장면4.

장술위는 장손술을 붙들어 배에 싣고, 다시 상연교와 대월을 함께 배에 오르게 하니 도적들이 웃고 말했다. “우리가 함께 두목을 모시고 가 구호하는 수고는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검이 다 된 아이와 유모를 데려가서 무엇에 쓰려하시오?” 장술위가 웃으며 말했다. “우습게 여기지 마라. 이 어린 소저는 만고에 빼어난 미인이니 낙양 근처에 가서 창가 주모에게 팔면 금은을 수고 없이도 가득 받을 것이고, 이 유모는 불과 서른 살쯤 되어 보이고 미모가 쇠하지 않아 얼굴이 고우니, 무리 중에 흠아비가 되어 아내 잃은 것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 원하는 것에 따라서 부부가 되게 해주면 그만한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니, 잠시 구호하는 일을 어렵게 여기겠느냐?” [권6]<sup>38)</sup>

36) 위의 책, 6쪽.

37) 완월대에서 5세로 소개된 후 납치는 2년 뒤쯤 일어난다. 『완월회맹연』 권1, 51쪽.

38) 『완월회맹연』 권6, 3~4쪽.

납치하거나 유기된 아동의 매매는 상연교와 같은 소녀들에게 특히 더 위협적이다. 소녀들의 매매는 목숨 같은 절개를 보장할 수 없는 유흥의 공간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앞서 상연교를 납치한 도적의 무리는 도망가는 길에 어린 아이와 그 유모를 데려가는 것을 수고롭게 여겼다. 이에 대해 두목 장술위는 ‘오쇼계’ 즉 ‘어린 소저’ 상연교의 미모가 빼어나기 때문에 낙양에 가서 ‘창모’에게 팔면 금을 가득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낙양은 후한을 비롯한 역대 9개 왕조의 수도였던 중국의 대표적 성시(城市)이고, ‘창모’는 유흥업을 관리하는 여성을 가리킨다. 겨우 7세 남짓한 여아를 대도시의 유흥업소에 팔기 위해 납치해간 것이다. 소설적 표현이지만 금을 가득 받을 수 있다는 장술위의 말은 이미 이러한 여아(女兒) 매매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분위기를 알려준다.

## 2) 표박과 행걸

<완월회맹연>의 ‘아동 서사’가 납치와 유기라는 사건으로 본격화됨을 살펴보았다. 정월염은 여러 차례 납치를 당할 뻔했고 정인성은 강물에 버려졌으며 정인광은 가족과 형을 잃고 온 산을 헤맸다. 정인성은 오랜 시간 표류 끝에 몽골 사신에게 구출되어 변방국을 전전하고, 정월염과 정인광은 사악한 도인들의 마수에 걸려 고생을 한다. 모두 신이하고 뛰어난 자질을 가진 이들이지만 여전히 나이 어린 아이들인지라 가족과 헤어져 홀로 세상에 던져진 두려움은 숨길 수 없었다.

### 장면5.

배 안을 더듬어 초를 구해 간신히 불을 밝히며 강물을 떠 누이의 입에 넣었다. 그 행동과 체모와 화란 속에서 누이를 위한 정이 친동기보다 부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녀의 예의를 잃지 않아 불을 밝히기 전에는 붙들어 구하지 못하고 춘

파를 명하니 그 삼엄한 예절이 성인의 후손이고 법도 있는 가문의 후예임을 알 수 있었다. 매우 오랜 후에야 소저가 인사를 차려 인광과 춘파를 붙들고 통곡했다. “흉적이 인성을 물에 던져 넣는 소리에 정신을 잃었더니 인성의 사생이 어찌 되었느냐?” 인광이 통곡하며 말했다. “사람이 일단 망망한 바다 속에 떨어지면 어찌 살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물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속절없이 마칠 것이지만, 형의 품모와 자질이 맥없이 쓰러지지 않을 듯합니다. 그러나 망망한 천리를 어찌 알겠습니까? 방금 흉화를 당할 때 저를 대신 던지라고 적들에게 빌지 못한 것이 한입니다.” 말을 마치고 남매가 길이 애통해하며 인성을 슬피 부르니 소리가 비통하고 애절하여 가을의 외로운 기러기가 무리를 잃고 대숲의 어린 봉새가 어미를 떠난 듯했다. [권5]<sup>39)</sup>

장면5는 납치와 유기로 인해 가족과 분리된 아이들의 처절함을 묘사하고 있다. 정인광은 정인성이 물에 빠지는 것을 막지 못한 채 도적들의 흉수를 피해 망망한 강물 위를 한없이 떠내려간다. 그의 옆에는 도적들에게 납치될 위기를 몇 차례 겪은 데다 정인성이 물에 빠지는 소리를 듣고 기절한 누이 정월염과 그녀의 유모 춘파가 있다. 이처럼 암담한 순간에도 정인광은 체모를 잃지 않고 차분히 행동한다. 기절했다 깨어난 유모 춘파가 인성의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자, 아직 깨어나지 못한 누이 정월염을 구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상황을 정비한다. 그런 다음 어두운 배 안을 더듬어 초를 구해 불을 켜고 강물을 떠서 누이에게 먹인다. 말 그대로 삼엄한 예절을 조금도 어기지 않는, 정대한 군자의 모습인 것이다.

그러나 막상 정월염이 깨어나 정인성의 생사 여부를 묻자 조금 전까지 동요 없는 태도를 보이던 정인광도 누이 앞에서 목 놓아 통곡한다. 엄정한 군자다움으로도 가릴 수 없는, 이제 겨우 8살 소년의 막막함이다. 의지할 곳도 정처도 없이 떠돌게 된 아이들의 목놓음은 끝이 없었고, 그 소리

39) 『완월회맹연』 권5, 14~15쪽.

는 애절하고 비통했다. 이들의 모습은 서술자의 말대로 가을날 무리와 동떨어진 외로운 기러기이고, 어미 잃은 어린 봉새인 것이다.

#### 장면6.

그전에 정인성이 흉악한 도적에게 사나운 해를 당해 몸이 천 길 강물에 떨어졌다. 인성은 일반 사람보다 뛰어난 성품과 기질이 날 때부터 기이하여 강보 때부터 왕이보가 들에서 노는 풍류를 높이 치지 않았으며 왕자안과 사마천의 썩을 듯한 기세로 즉석에서 천 마디의 글을 쓰고 놀이판을 꿸으며 등왕각에 서 문 지은 것을 과하게 여겼다. 그러나 겨우 여덟 살 어린 나이로 저 무리의 사납고 매서운 힘을 어찌 감당하리오…용신이 인성을 부서진 배의 널 위에 올리고는 끌어 표류하여 사흘 밤낮을 회살을 쓴 듯이 가는데, 공자가 그래도 정신을 잃지 않은 상태라 만 리 바다 위에 한 조각 널을 의지하니 비록 강물에 잠기는 화는 면했으나 어찌 살기를 바라겠는가?…이렇듯 참담히 슬퍼할 뿐이었다. [권12]<sup>40)</sup>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은 안정과 정착을 의미하고 가족과의 분리는 불안과 떠돌을 의미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보호자를 잃은 아이들은 정착할 곳을 찾아 떠돌 수밖에 없다. ‘떠돌’은 목숨을 위협받는 위험한 도정이다. 그것은 아무리 일찍 철이 든 아이에게도 무섭고 참담하고 슬픈 일이다. 정인성은 <완월회맹연>에서 가장 비중 높은 주인공으로, 타고난 기질이 비상하여 역사상 손에 꼽히는 문인 학자들도 낮게 보는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신이한 존재들까지 그를 보호하여, 때로는 수신(水神)이 때로는 용신(龍神)이 그를 지켜준다. 그럼에도 그가 ‘겨우 여덟 살 어린 나이’라는 사실은 평범한 도적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중요하고 설득력 있는 이유로 제시된다. 그렇게 하여 물에 버려진 정인성의 삶은 말

40) 『완월회맹연』 권12, 1~3쪽.

그대로 '한 조각 널을 의지하여 표류'하는 것에 불과하다. 당장의 죽음은 면했지만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바랄 수도 없는 상태인 것이다.

가족과 헤어져 살길이 막막해진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장창린과 교숙란은 모두 5-6개월 즈음에 도적에게 납치를 당해 다른 부모에게 거두어 길러지다가 십 수 년이 지나서야 친부모를 만난다. 상연교는 도적에게 납치되었다가 한씨 집안에 팔린 뒤 10년 만에 부모의 품으로 돌아온다. 부모를 만나기까지 아이들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아이들이 생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저기 떠돌며 구걸하는 일이다. 표박과 행걸의 삶이 버려진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장면7.

(정인광은) 눈이 쌓이는 속도는 여전히 빠르고 날이 저물어 어두운 빛이 거뭇 거뭇하니 산골짜기에서는 발 디딜 곳을 알지 못하고 종일 눈비에 옷이 매우 젖어 얼음이 되었다. 몸을 구부리고 피기를 마음대로 못할 뿐 아니라 온몸이 몽땅 얼음이 되었으니 딱딱해져서 부드러운 곳 없이 굳었으며 여기저기 빈틈없이 단단해진 것이 나무로 깎아 만든 사람과 옥으로 새겨 이룬 사람 같았다. 온몸에 온기가 없으니 아직 맥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어찌 살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 두 노복이 입을 병긋병긋하다가 능히 답을 하지 못하니 위태한 형상은 당장 죽을 듯한 모습으로 입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권16]41)

가족과 분리된 아이들은 유리표박(流離漂迫)의 삶을 살게 된다. 집을 잃고 떠도는 생활이란 어떠한 보호막도 없이 세상의 풍파를 그대로 맞이하는 일이다. 아이는 작은 몸으로 모진 세상을 견뎌야 한다. 그것의 구체적 모습은 배고픔과 추위이다. 도적의 무리를 겨우 피해 누이 정월엄을

41) 『완월회맹연』 권16, 21~22쪽.

찾아 낙성촌을 향해 가는 정인광 일행은 거센 산바람과 차가운 눈비를 무릅쓰고 인적 없는 어두운 산길을 걸어간다. 종일 내린 눈비에 젖은 몸은 딱딱하게 얼어 나무와 옥으로 만든 사람처럼 구부리고 펴는 것도 못하게 되었다. 온몸에 온기라고는 하나도 없어, 겨우 한 줄기 맥만 남아 있을 뿐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성인인 노복들도 입만 병긋할 뿐 말 한마디 낼 수 없는 상황이니 어린 정인광이 느끼는 고통이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장면8.

그 사람이 (칭하는 말을) 듣고 코를 풀고 입을 삐죽이며 “그대들은 참으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로다. 이 지역에서는 은 한 냥에 한 말 곡식 주는 것도 꺼리는 바가 될 정도로 기근이 참혹한데, 사람이 무슨 기운이 있어서 나무를 하여 방을 덥히고 저마다 더운 방에서 자며 (화로에) 불을 담아 놓았겠느냐. 나의 상전이라도 이렇게 기운이 없는데 그런 심부름은 못하겠다.” 라고 하고는 저벽저벽 도로 들어가며 본 체도 아니 하거늘 [권16]<sup>42)</sup>

배고픔과 추위는 생존의 문제이다. 떠도는 아이들은 살기 위해 몸을 녹일 곳, 배를 채울 곳을 구한다. 그러나 세상의 인심이나 조건이 항상 이들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정인광 일행은 종일 눈비를 맞으며 험준한 산길을 지나 한밤에 이르러서야 낙성촌의 인가를 발견하지만, 그곳의 주인은 이들을 집안으로 들이지 않는다. 운옹과 경학이 간곡히 부탁했으나 주인은 코를 풀고 입을 삐죽이며 비싼 곡식과 귀한 나무를 나눌 형편도 마음도 아님을 말하고, 본체만체 들어간다. 이에 정인광은 다른 곳을 찾아보자고 한다. 이집저집 다니며 이문저문 두드리고 잘 곳과 먹을 것을 청하

42) 위의 책, 28~29쪽.

는 일이 영웅적 자질을 가진 아이에게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장면9.

(촌맹이) 겨우 좁쌀 한 되를 얻어 끓이고 쓴 소금 한 움큼을 깨진 질그릇 조각에 놓아 노주 3인의 죽을 함께 떨어진 평상에 놓아 올렸다. ... 정인평이 숨을 내쉬며 말하길, “내 평생에 음식 나쁘다 타박하는 것이 없으니 병이 없어 비위가 맞지 않는 것이 이보다 더한 것인들 어찌 못 먹을 것이 있겠느냐” 말을 마치고 좁쌀죽을 들어 마시기를 진미처럼 하고 간간이 쓴 소금을 집어 뿌리며 더럽게 여기는 빛이 없이 먹기를 다했다. 두 노복이 공자가 달게 먹는 것을 보니 저희가 꺼리고 안 먹을 수 없어 거슬리는 것을 억지로 겨우 반을 마셨다. 비위가 눅눅하여 더는 먹지 못하고 물려놓으니 주인이 들어와 보고 죽이 남은 것을 매우 다행히 여겨 경용이 먹던 것은 제 아내에게 주고 운학이 먹던 것은 제가 들어 마시며 간간이 혀를 둘러 사발가를 훑는데, 그릇이 깊기 때문에 혀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개발 같은 손으로 훑쳐 조 낱알을 거두어 먹기를 선단과 영약보다 더하게 여겼다. [권16]<sup>43)</sup>

어렵게 구걸에 성공하여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운용과 경학은 몸에 지닌 것 중에 돈이 될 만한 것을 모두 내어 주인에게 건넸지만, 주인이 마련해주는 것은 약간의 좁쌀죽뿐이었다. 좁쌀 한 되로 3인의 죽을 끓였기 때문에 양이 부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맛이 없을 뿐 아니라 비위에 거슬릴 만큼 불결했다. 그러나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것도 달게 먹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버려진 아이들이 구걸하며 살아가는 구체적 모습이라 하겠다.

43) 위의 책, 32~33쪽.

#### 4. 유기(遺棄)와 행걸(行乞)의 문학적 전유

<완월회맹연> 속 ‘아동 서사’의 주요 장면들은 어린 나이에 납치되거나 버려져서 부모를 잃고 떠돌며 구걸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때로는 악인의 계교로 인해, 때로는 부모의 실수나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가족을 잃거나 버려지거나 한다. 이렇게 부모와 분리된 아이들은 이곳저곳을 떠돌며 온갖 고생을 한다. 배고픔과 추위를 피하기 위해 식량과 잠잘 곳을 구걸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팔리기도 한다. 그러다 다행히 인심 좋은 사람에게 거두어져 양자나 양녀가 되기도 한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가족과 재회하고 이후 영웅적 행적을 드러내지만, 그들이 경험하는 고난을 인물의 영웅성을 구현하는 허구적 장치로만 볼 수 없을 것이다. 작품이 그리는 ‘아동 서사’의 장면에는 일정 부분 당시 아이들의 삶에 대한 대중의 서사적 기억과 반응, 즉 아이들의 현실에 대한 우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동의 유기와 행걸은 <완월회맹연>이 창작·향유되던 조선의 중요한 사회 문제 중 하나였다. 일반적으로 조선 아동의 생활을 이야기할 때 많이 다루는 『소학』이나 『양아록』 등의 자료는 부모와 가문의 보호와 양육 속에 있는 아동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만 조선시대의 아이들이 언제나 부모에게 보호받고 양육 받는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특수 계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아동을 대상으로 생각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잦은 빈도로 부모와 가문으로부터 이탈되었다.

아이들이 ‘유기’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였다. 그중 가장 주요한 것은 유이민의 발생으로, 뒤에서 다시 논하겠지만 전란과 재해와 과도한 부역 등으로 유이민이 발생할 경우 아동 유기도 증가하는 것이다. 그 외에는 빈

민이 자식을 기를 수 없거나<sup>44)</sup> 혼잡한 성시에서 아이를 잃어버리거나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벗어나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에 아동 유기가 일어나기도 했다.<sup>45)</sup> 정약용은 『목민심서』에 특별히 「자유(慈幼)」편을 두어 전쟁이나 흉년으로 인해 팔리거나 버려진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죽고 돌봐줄 친척이 없어 죽을 처지에 놓인 아이들, 그리고 간음으로 인해 태어나서 버려진 아이들을 구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46)</sup>

이와 같은 아동의 '유기'는 광범위한 사회 현상이었다. 전체적 통계는 정리되어 있지 않으나 국왕이 나서서 유기아를 위한 진휼정책 및 관련 처벌 조항을 마련했던 사실에서 아동의 유기가 사회 전체에 걸친 문제이며 국가적으로 주요한 사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부모가 죽은 아이들, 기근에 버려진 아이들, 길을 잃은 아이들을 불법으로 데려다 노비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과 아이들이 이웃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굶어죽는 것을 막기 위해 제생원에서 임시로 양육하거나 자산가에게 거두어 기르게 했던 조치가 조선초부터 있었던 것이다.<sup>47)</sup> 유기아를 불법으로 감추어 노비로 삼는 것은 일종의 '납치'인데, 납치한 사람은 물론 마을의 수령과 오가(五家)를 같이 처벌하기도 했다.<sup>48)</sup> 아동의 유기 현상은 국가의 대법전인 『경국대전』에서도 언급하는바,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집 잃은 아이의 보호를 책임지는 것을 기조로 했고 개인에게 양육을 맡기는 경우도 정부에서 아동의 의식 비용을 대 주었다.<sup>49)</sup>

44)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 『各司受教』 『漢城府受教』, 청년사, 2002, 163쪽.

45) 김무진, 「조선사회의 유기아 수양에 관하여」, 『계명사학』 4, 계명사학회, 1993, 71쪽.

46) 정약용, 『목민심서』 「애민·자유(慈幼)」.

47) 김무진(1993), 앞의 논문, 50쪽.

48) 『세종실록』, 「漢城府啓」, 세종 즉위년(1418) 8월 18일; 김무진(1993), 위의 논문, 50쪽에서 재인용.

조선 중기 대량의 유기민이 발생하면서부터는 아동의 ‘유기’가 국가 진흥 정책의 주요 업무가 되었다. 중종조에 경향 각지에 특별히 유기아를 거두어 기르라는 명령을 내렸는데,<sup>50)</sup> 16-17세기를 지나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대규모의 전쟁과<sup>51)</sup> 경신대기근과 같은 자연 재해<sup>52)</sup> 및 과도해지는 조세와 부역 등과 맞물려 유기아도 증가했다. 그 중에는 다시 죽을 곳으로 버려지는 아이들도 있었다.<sup>53)</sup>

유기아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초기 국가 주도의 유기아 보호 정책은 점차 개인 주도의 유기아 보호로 변모했다. 그 양상은 크게 양자·노비·고공으로 삼는 것이지만,<sup>54)</sup> 17세기 중엽 이후로는 양자나 노비로 삼는 것이 일반화되었다.<sup>55)</sup> 이것은 개인에게 유기아 보호를 명목으로 한 노동력 확보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때문에 유기아를 매매하여 사들이거나<sup>56)</sup> 유인하여 파는 것은 물론<sup>57)</sup> 세력 있는 사람들이 위력을 써서 유기아를 빼앗기도 했다.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 유기아를 노비로 삼을 경우 진휼청의 입안을 받도록 법제화했던 상황도 확인된다.<sup>58)</sup>

숙종조에는 유기아 관련 법령들을 정비하여 하나의 법 체제로 묶어 「유기아수양법(遺棄兒收養法)」, 일명 「을해진휼사목(乙亥賑恤事目)」을 만들었는데,<sup>59)</sup> 이것은 조선후기에 유기아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말

49) 『경국대전』, 「禮典」, 「惠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50) 『중종실록』, 중종 6년(1511) 10월 27일.

51) 『受教輯錄』 「禮典」 「惠恤」.

52) 『현종실록』, 현종 11년(1670) 8월 17일 ; 현종 12년(1671) 3월 18일.

53) 『현종실록』, 현종 4년 11월 27일.

54) 김무진(1993), 앞의 논문, 53쪽.

55) 『受教輯錄』 「禮典」 「惠恤」.

56) 『受教輯錄』 「禮典」 「惠恤」.

57) 『세종실록』 세종 18년(1436) 10월 11일.

58) 『受教輯錄』 「禮典」 「惠恤」.

해준다. 『을해진휼사목』에 따라 대략 12세까지의 유기아는 노비로 거두어졌고,<sup>60)</sup> 13세부터 16세 이전까지는 고공으로 거두어졌다.<sup>61)</sup> 해당 사목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 노비나 고공을 삼기 위해 유기아를 강제로 위협하여 거두거나 빼앗는 일에 대해 중죄로 다스린다는 규정도 분명히 하고 있다.<sup>62)</sup> 이러한 규정은 당시 유기아에 대한 납치가 공공연히 이루어졌음을 알게 한다.<sup>63)</sup> 유기아 문제는 영조조에서도 심각하여 다시 한 번 『임자진휼사목(壬子賑恤事目)』을 반포했고,<sup>64)</sup> 『속대전』에서도 관련 법규를 규정하였다.

유기아는 노비나 고공으로 거두어지기까지 떠돌며 빌어먹는 행걸아이기도 하다. 정조조에 반포된 『자휼전칙(字恤典則)』은 행걸아에 대한 언급을 별도로 규정하였다. 『자휼전칙』에 따르면 3세까지를 유기아라 하고 4-10세까지를 행걸아로 나누었지만,<sup>65)</sup> 이것은 법적인 개념일 뿐 실제로는 혼용되었고 나이에 대한 구분도 엄격하지 않았다.<sup>66)</sup> 이 책은 유기아와 행걸아의 급량에 대한 규정인데, 그 서문을 보면 당시 유기아와 행걸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정도를 알 수 있다.

59)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 『新補受教輯錄』 「禮典」 「惠恤」, 청년사, 2000, 213쪽.; 정약용, 『牧民心書』 권13, 「賑荒六條」 「嬰孩遺棄者, 養之爲子女, 童穉流離者, 養之爲奴婢, 並宜申明國法, 曉諭上戶」.

60)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2000), 위의 책, 210쪽.

61)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2000), 위의 책, 210쪽.

62)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2000), 위의 책, 212~213쪽.

63) 『속대전』 「刑典」 「私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64)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2000), 위의 책, 217쪽.

65) 『大全通編』 「禮典」 「惠恤」.

66) 변주승, 「조선후기 유기아·행걸아 대책과 그 효과-급량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34, 1998, 366쪽.

전교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흉년에 굶고 떠돌다 쓰러지는 자가 누가 임금의 정사에서 구제할 바가 아니겠는가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하소연할 데 없고 가장 불쌍한 자는 아이들과 어린 것이다. 저 자란 것은 남의 고공이 되어 물도 기르며 나무도 켜서 그래도 자기 힘으로 밀천삼아 살겠지만 아이들 어린 것은 이와 달라 몸을 가리고 입을 도리 먹을 도리를 스스로 힘쓸 길이 없어 울고 부르짖어 살기를 빌어도 의지할 곳이 없다. 길가에 내버려진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사이 무슨 연고가 있는 줄은 알지 못하거니와 대강 부모 없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고 비록 부모가 있더라도 굶주리고 추운 것이 몸에 절박하여 부모와 자식이 다 살아나지 못할 것을 알고 인정을 배고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 (아이들) 거리에 내버려 보는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 (테려가) 살리기를 바라는 것이다. 만일 착한 사람이 있어서 (아이들) 데려다 기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여 여러 때가 지나면 문득 죄 없이 죽을 것이니 슬프다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낸 뜻이 어찌 한갓 이러하겠는가? 활인과 혜민 두 마을을 둔 것은 곧 의술과 약으로 죽은 사람을 구하려 한 뜻이다. 백성이 병이 있어도 오히려 관원을 두어 구하려 하는데 하물며 이 아이들과 어린 것들이 혹 다니며 빌고 혹 내어버리는 것이 병든 것보다 더욱 긴급하다. 유리걸식하는 아이들을 구하여 기르던 광제원과 육영사의 아름다운 법제는 고금이 달라 하루아침에 모두 행하기 어렵지만 서울은 팔방의 법이 되는 곳이니 약간 옛날의 법을 모방하여 먼저 여기에서부터 비롯하여 점차 본받게 하는 것이 실로 어진 정사의 시작이 될 것이다. -후략<sup>67)</sup>

인용문은 언문(諺文) 『자훈전칙』의 서문이다. 핵심은 유기아와 행걸아의 구휼에 대한 국왕의 진심을 전국에 알리고 관심을 요청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정조는 스스로 흉년에 굶고 떠도는 백성 중에 가장 위급하고 절박한 대상이 아이들과 어린 것임을 강조한다. 그들은 제 힘으로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어디에 하소연하거나 빌어먹는 것도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가 아이를 버리는 이유가 극도의 가난

67) 언문 『자훈전칙』, 장서각본, 「서문」.

으로 인해 함께 있으면 다 같이 죽게 될 처지라서, 인륜의 정을 끊어서라도 아이를 살리기 위함임을 지적하면서 인정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이 버려진 아이와 구걸하는 아이를 거두어 돌봐줄 것을 요청한다. 국왕이 있는 서울에서부터 시골까지, 본 『자휼전칙』이 온전히 시행되기를 바란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언해본으로 유포되었기 때문에 한자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사대부 남성뿐 아니라 한글 소설의 주 향유층인 여성과 중인 이하의 사람들까지도 아동 유기와 행걸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을 터이다.

『목민심서』에서도 행걸아를 주요한 구휼의 대상으로 보았다. 「진황(賑荒) 6조」 중 제4조 「설시(設施)」의 「버려진 갓난아이는 길러서 자녀로 삼고 떠돌이 아동은 길러서 노비로 삼되, 모두 국법을 거둬 밝혀서 상호(上戶)에게 효유해야 한다」에서는 버려진 젓먹이인 유기아와 구걸하며 다니는 행걸아의 구제를 말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사족(士族)의 자녀로서 유리결석하는 자를 거두어 길러서 노비가 된 자는 목민관이 일이 안정된 뒤에 관(官)에서 돈을 내어 이것을 갚아 주고 양민이 되게 하면 또한 음덕이라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sup>68)</sup> 유기아 및 행걸아 중에는 사족의 아동도 적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 행걸아는 과도한 부역 등을 피해 산간으로 들어가 도적이 된 사람들이 구걸과 절도를 생업으로 삼는 것과 관련되기도 했다.<sup>69)</sup>

이처럼 개략적으로 살펴봐도 아동과 관련한 조선사회의 풍경이 천진과 낭만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은 끊임없이 납치와 유기, 표박과 행걸의 삶에 노출되었고, 그러한 삶은 생명과 직결된 위협이 되기도 했다. 이것은 <완월회맹연>의 아동 서사가 포착하고 있는 아동 인물들의 고난과 겹쳐진다. <완월회맹연> 속 아동 서사의 주요 장면들도

68) 정약용, 『목민심서』 「賑荒六條」.

69) 『문종실록』 문종 1년(1451) 11월 11일.

납치와 유기, 표박과 행걸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설이 그리는 아동 서사의 주요 장면들은 조선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아동의 유기와 행걸’을 문학적으로 전유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작품이 담아내는 ‘버려지고 납치되고 떠돌고 구걸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완전한 문학적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사회적 현상의 ‘문학적 장면화’인 것이다.

## 5. 마치며—고소설 속 사회 풍경

16세기의 조선은 조세 수탈과 관료의 부패가 심해지면서 농민층이 붕괴하기 시작했고, 17세기에는 두 차례의 전란으로 인해 양반 계층까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sup>70)</sup> 전 사회적인 모순과 혼란을 경험하고 등장한 조선후기 고소설의 다수는 주인공의 영웅적 성장 과정을 담고 있다. 가문과 국가의 몰락을 극복하는 영웅적 인물의 서사가 주요 골격인 것이다. 그러한 영웅 서사의 핵심은 ‘어려서 겪는 고난의 서사’이다. 우리는 그것을 ‘아동 서사’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조선후기 소설의 아동 서사는 영웅적 인물이 어려서 겪는 고난의 서사라는 문학적 형식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완월회맹연> 속 정인성, 정인광, 정월염, 상연교, 장창린 등이 겪는 고난이 바로 이러한 성격을 보여준다.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는 중대한 역사적 배경이 전제되는 것처럼,<sup>71)</sup> 문학의 주요한 장면에는 특정한 역사적 현실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더 들여보자. 대표적인 작품이 <속향

70) 김성우(2002), 앞의 논문, 409~423쪽.

71) 김성우(2002), 위의 논문, 413쪽.

전>이다. <숙향전>은 5살 된 숙향이 병란 중에 부모를 잃고 10여 년 간 헐벗은 채 떠돌며 남의 집 노비로 일했다가 수양딸도 되었다가 중국에 부모와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사건의 발단이자 핵심은 피란 중에 김전 부부가 등에 업고 가던 어린 딸 숙향을 도적이 쫓아오는 길에 바위틈에 두고 갔다 잃어버리는 장면이다. 부부는 아이에게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지만, 돌아왔을 때는 이미 도적이 아이를 데려간 후이다. 이것은 전란이나 흉년 등으로 사세가 급박하여 부모가 아이를 버리게 되는 '아동 유기'의 현실에 대한 '문학적 장면화'이다.

<숙향전>이 그리고 있는, 유민이 유랑 중에 자식을 잃거나 등에 업은 자식을 길가에 버리는 사건은 조선후기 사회에서 낯설지 않게 목격되는 사회적 현상이다. “또 행인의 말을 들으니, 북쪽에서 온 유민 중에는 종종 안거나 업고 온 어린 아이를 여관에 맡기며 아무 날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는 끝내 돌아오지 않는 자도 있고, 바로 길가에 버리고 가는 자도 있다고 합니다. 이로 미루어보건대 철령을 넘어오기 전에 들판에 버린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뿌리가 잘린 쑥대처럼 굴러다니는 백성은 몸을 덮을 것이라고는 해진 갈옷 한 벌 뿐이며 손에 쥘 것이라고는 빈 바가지 한 개 뿐인데, 메마른 혀와 굶주린 배로 쓰러질 듯 간신히 다니다가 장차 어디서 죽게 될지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7-8일 아니면 10여 일이 못 가 굶어죽어 길에 묻힌 시체가 경기의 들판에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sup>72)</sup>라는 조경(趙綱)의 기술과 “떠돌며 빌어먹는 백성들이 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이루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옷자락을 잡고 따라가는 6-7세 된 아이를 나무에 묶어 두고 가기도 하며, 부모 형제가 눈앞에서 죽어도 슬퍼할 줄 모르고 묻어 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도리가 끊어진 것이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sup>73)</sup>라는 『실록』의

72) 조경(趙綱), 『용주유고(龍洲遺稿)』 「진구기민소(賑救饑民疏)」, 고전번역원.

기사에서 우리는 또 다른 숙향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고소설은 ‘문학적 장면화’를 통해 수많은 사회적 풍경을 담아낸다. 사회 현실을 완벽하게 외면한 문학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심마 소설로 분류되는 <서유기>마저도 장면화 과정에서 강호를 떠도는 시정인의 생활과 동심을 추구하는 지식인의 지향을 담아냈다.<sup>73)</sup> 그렇기 때문에 고소설의 아동 서사는 그 인물이 비록 초월적 영웅일지라도 그 작품이 형성된 시대의 아동 현실을 우의하게 된다. 어쩌면 아동의 고단하고 절박한 삶을 영웅의 고난 서사 방식으로 담아내는 것은 아동이 겪는 현실의 서사를 문학적으로 기억하는 방식일 뿐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질곡을 잘 견뎌내기를 바라는 문학적 기원일지도 모르겠다.

---

73) 『현종개수실록』, 현종 12년(1671) 4월 3일.

74) 林庚, 김수연 역, 『서유기-강호에서 동심으로』, 학고방, 2019, 71~125쪽.

참고문헌

『완월회맹연』, 장서각.  
 『창선감의록』, 국립중앙도서관.  
 『大全通編』,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문종실록』, 고전번역원.  
 『세종실록』, 고전번역원.  
 『숙대전』, 한국사데이터베이스.  
 『受教輯錄』,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예기』, 영인본.  
 『字恤典則』, 장서각.  
 『중종실록』, 고전번역원.  
 『현종개수실록』, 고전번역원.  
 『현종실록』, 고전번역원.  
 김창협, 『농암집』, 고전번역원.  
 이익, 『성호전집』, 고전번역원.  
 정약용, 『경세유표』, 고전번역원.  
 정약용, 『다산시문집』, 고전번역원.  
 정약용, 『목민심서』, 고전번역원.  
 조경(趙綱), 『용주유고(龍洲遺稿)』, 고전번역원.  
 최치원, 『계원필경집』, 고전번역원.  
 광승훈, 『고운집』, 『최치원의 저술과 고뇌, 그리고 역사탐구』, 고전번역원, 2009.

김무진, 「조선사회의 유기가 수양에 관하여」, 『계명사학』 4, 계명사학회, 1993, 47~87쪽.  
 김성우, 「홍길동전 다시 읽기-조선사회의 경직화와 마이너리티의 저항」,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02.12., 403~421쪽.  
 김시습·구우, 김수연·탁원정·전진아, 『금오신화 전등신화』, 미다스북스, 2010, 4~304쪽.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15, 4~503쪽.  
 林庚, 김수연 역, 『서유기-강호에서 동심으로』, 학고방, 2019, 5~323쪽.

- 변주승, 「조선후기 유기아·행걸아 대책과 그 효과-급량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34, 고려사학회, 1998, 366~401쪽.
- 신양재, 「조선후기 풍속지에 나타난 아동교육 고찰-『동국세시기』·『열양세시기』·『경도잡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한국가정관리학회, 1994, 219~228쪽.
- 에밀 뒤르켐, 노치준 외, 『종교적 생활의 원초적 형태』, 민영사, 1992, 3~611쪽.
- 이대형 역, 『수이전』, 소명, 2013, 3~359쪽.
-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 『各司受教』, 청년사, 2002, 23~238쪽.
-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 『新補受教輯錄』, 청년사, 2000, 5~576쪽.
- 한길연, 「대하소설 속 ‘아동’의 서사문법적 역할과 의미」, 『국문학연구』 28, 국문학회, 2013, 41~83쪽.
- 한길연, 「생활문화사적 측면에서 본 대하소설 속 “아동”의 형상화와 그 의미」, 『고소설연구』 37, 한국고소설학회, 2014, 262~313쪽.

ABSTRACT

Literary Scene and Social Meaning of 'Child Narrative'

— Focusing on <Changseongamuirok(倡善感義錄)> and  
<Wanwolhoemaengyeon(玩月會盟宴)>

Kim, Soo-youn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novel is a genre that presents a literary scene of a particular situation in human life, and it is a literary scene of collective representation that is closely linked to literary imagination. Among the many past lives that old novel remembers and records in the form of storie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tories of children of the Joseon Dynasty, 'child narrative'. To this end, I first confirmed that old novel considered the age of 15 as child, called 'dong-hae(童孩)', and viewed it as a "young and ignorant child" through the <Changseongamuirok>, and saw that it coincided with the age of children generally used in Joseon society.

Next, I looked at the literary scenes of child narrative for <Wanwolhoe-maengyeon>. The main event of the child narrative is separation from the family, which is divided into 'kidnapping and abandonment' and 'floating and begging'. The scenes of 'Child narrative' include some of the public's narrative memories and reactions about children's lives at that time, that is, the metaphor of children's reality. The actual decrees and historical records confirmed that the issue of child abandonment and beggi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was a major social issue. The main scenes of child narratives depicted in the novels are literary appropriations of 'children's abandonment and begging' which occur repeatedly in Joseon society.

**Key Words** <Changseongamuirok>, <Wanwolhoemaengyeon>, Literary Scene, Child Narrative, kidnapping, abandonment, floating, begging

논문투고일 : 2019.10.15

심사완료일 : 2019.11.10

게재확정일 : 2019.11.25